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지침

—
암 검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암 검진

이 지침서는 ‘국민 암 예방 수칙’의 열 번째 항목인 ‘암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 없이 받기’의 실천을 확산하고, 암 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암 검진받기 무섭다고요? 아니면 바쁘다고요?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통해 정기적인 암 검진 참여의 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국민 암 예방 수칙 실천지침: 암 검진

01. 암 검진의 필요성을 알아보시다	4
02. 암 검진이란?	6
03. 암 검진 절차	16
부록. 답안과 설명	17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암 검진

이 지침서는 ‘국민 암 예방 수칙’의 열 번째 항목인 ‘암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의 실천을 확산하고, 암 검진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암 검진받기 무섭다고요? 아니면 바쁘다고요?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를 통해 정기적인 암 검진 참여의 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01. 암 검진의 필요성을 알아봅시다

○ 암 검진을 통해서 암 예방

암 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23만 명 이상의 암 환자가 새로이 발생하고, 약 7만 9천여 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 남자는 5명 중 2명, 여자는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암종은 남자의 경우 폐암, 전립선암, 대장암, 위암, 간암 순이고, 여자의 경우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위암 순입니다.

통계청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남자의 경우에는 폐암, 간암, 대장암, 위암이 전체 암 사망의 약 59.6% 정도를 차지하며, 여자의 경우에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이 전체 암 사망의 약 4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끝나지 않은 암의 위협

전체 암의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를 보면, 1999년 10만 명당 약 403명에서 2020년 약 483명으로 증가하였고, 눈부신 암 진단 및 치료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암 발생 및 사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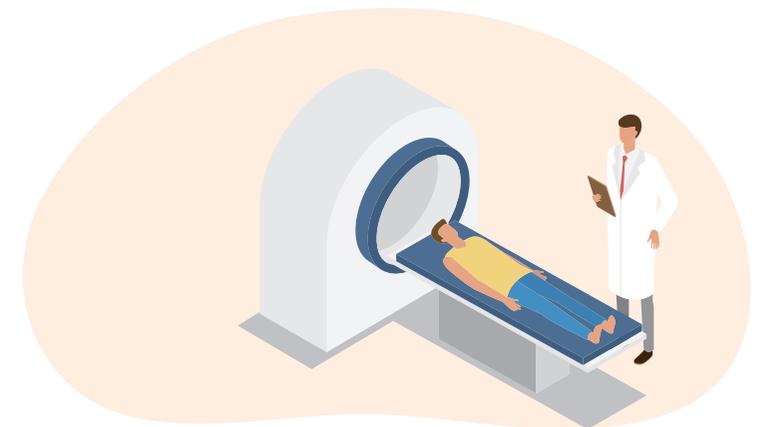
• 암종별 5년 생존율

암은 치료 5년 이후에는 재발률이 매우 낮아지므로 '5년 생존율'이 치료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암 치료 후 환자의 5년 생존율은 갑상선암처럼 100%가 되는 암종이 있는 반면에 췌장암처럼 약 16% 정도로 매우 낮은 암종도 있습니다.

위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평균 78% 정도이나,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유방암은 90% 이상, 자궁경부암은 약 80% 정도로 5년 생존율이 높았지만, 병기(암의 진행 정도)에 따른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높은 병기(진행성암 또는 말기암)에서 5년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기에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었으나 4기에는 27%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유방암은 어떤 형태로든 수술적 절제가 필요한데, 병기가 낮은 조기암일수록 유방의 형태를 보존하고 암 조직만을 제거하는 유방보존수술을 적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암종별 5년 생존율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암에서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하는 경우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반면에, 암이 진행된 후 진단될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의 치료와 암으로 인한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02. 암 검진이란?

암 검진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를 받아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암을 불치병 혹은 난치병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치료가 가능한 초기에 암을 발견하기보다는 상당히 진행되어 증상이 나타나서야 암을 진단받기 때문입니다.

암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으며, 암이 진행되어 나타나는 증상들도 평소 흔히 경험하던 증상과 비슷하여서 암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몸의 이상 증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암이 커져 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퍼져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흔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은 비교적 쉽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 국가암검진사업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암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은 별다른 위험요인이 없는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필수적인 암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암 검진은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대상 암종	검진 대상	검진 방법	검진 주기
위암	40세 이상 남녀	위내시경검사 (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 시행)	2년
간암	40세 이상 남녀 간암 발생 고위험군 ¹⁾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6개월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이상이 있을 때는 대장내시경검사	1년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	2년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세포검사	2년
폐암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²⁾	저선량 흉부 CT 검사	2년

1)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① 간경변증 ②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 ③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 ④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 환자

2)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 30갑년[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갑) ×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 해당연도 전 2년 내 건강보험 금연 치료 참여자 중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폐암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어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는 검진 후 금연을 하더라도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폐암검진 대상자에 포함

○ 7대 암 검진 권고안

국립암센터는 관련 학회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진 효과와 위해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평가 연구를 통해 7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폐암) 검진 권고안을 개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2015년 9월 9일).

7대 암 검진 권고안은 기존의 국가암검진 대상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종인 폐암과,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갑상선암에 대한 검진 권고안을 새로이 개발한 것입니다. 새로이 발표된 7대 암 검진 권고안은 암 검진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우리나라 국가암검진 효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가 체계적인 근거 평가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7대 암 검진 권고안은 진료실에서 개인 수준의 암 검진 관련 상담을 담당하는 의료인들에게 암 검진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효과적인 암 검진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향후 7대 암 검진 권고안을 바탕으로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개정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것입니다.

① 위암 검진 권고안

위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40-74세의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위내시경을 이용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75-84세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위암 검진을 실시하는 것은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85세 이상에서는 위암 검진을 시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위내시경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은 위장조영촬영보다 정확도가 높으며 위암 사망률을 2배 이상 낮춥니다. 위내시경을 할 수 없거나 쉬운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위장조영촬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간암 검진 권고안

간암 검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암 검진과는 달리 간암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알려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또는 간경변증이 있는 경우는 고위험군에 해당됩니다.

간암은 다른 암종과 달리 고위험군에서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 성적이 다른 암종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간암 고위험군(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간경변증)을 대상으로 매 6개월 간격으로 간초음파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40세부터, 간경변증에서는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간암 검진은 간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초음파검사를 통해 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혈액을 통한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간암 검진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대장암 검진 권고안

대장암은 자궁경부암과 마찬가지로 암 발생 이전 단계가 알려져 있어 조기에 발견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대장암 이전 단계로 알려진 ‘용종’ 또는 ‘폴립’이라고 불리는 대장 내의 혹을 발견하여 제거함으로써 암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45-80세의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1년 또는 2년마다 분변잠혈반응검사를 기본적인 선별검사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81세 이상 성인은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므로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검진은 분변잠혈반응검사를 기본적인 검사로 권하며, 선택적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으셔도 됩니다. 이중조영바륨관장술과 CT대장조영술은 검진의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④ 유방암 검진 권고안

유방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40-69세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을 이용한 유방암 검진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여성은 검진을 원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선택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검진은 유방촬영검사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방촬영검사는 초기 단계의 유방암을 발견하는 데 효과적인 검진 방법입니다. 반면 유방초음파검사와 임상 유방 진찰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여성에서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유방에 만져지는 혹이 있거나 이상 병변이 발견되었을 때 필요한 검사입니다.

⑤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20세 이상의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3년 간격으로 자궁경부세포검사(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및 자궁경부액상세포도말검사(Liquid Based Cytology))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자궁경부암 검진에서 연속 3번 이상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음성으로 판정받았으면 검진을 받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세포검사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와 함께 선택적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HPV)검사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인유두종바이러스검사만 단독으로 받는 것은 검진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⑥ 폐암 검진 권고안

55-74세 30갑년(하루에 피운 담뱃갑 수와 햇수의 곱)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 또는 금연한 지 15년 이내의 과거 흡연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이용한 폐암 선별검사를 매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폐암 검진은 저선량 흉부 CT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선량 흉부 CT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량을 일반적인 흉부 CT의 1/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 흉부 X-선 촬영, 객담세포진 검사, 혈청 종양표지자는 폐암 검진 방법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⑦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에서는 무증상 성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의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일상적인 선별검사로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목에 혹이 만져지는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나 갑상선암 검진을 원하면 검진의 이득과 위해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검진 여부를 결정하여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나의 암 검진과 관련된 상식은?

아래 내용을 읽고 맞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O, X 표시를 하고, 이 지침서의 뒷부분에 있는 부록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내 용	O	X
1. 위암은 증상이 나타난 후에 병원을 찾으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2.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유방의 모습을 보존할 확률이 높다.		
3. 분변잠혈검사로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4. 성 경험이 있는 여성은 나이와 관계없이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		
5. 간암 검진은 4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아야 한다.		
6. 폐경 후에는 유방암 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다.		
7. 위내시경검사 결과 정상이면 더 이상 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된다.		
8.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여성은 누구든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9. 복부초음파검사를 하면 간암을 확인할 수 있다.		
10.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없이 받아야 한다.		

*정답 : 17쪽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암 검진에 더욱 신경 쓰세요.

1.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중에 현재 암에 걸린 사람이나 과거에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2. 만성 염증성 대장 질환(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
3. 선종성 대장용종(또는 폴립)이나 가족성 대장 용종증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앓았던 적이 있습니까?
4. 간 질환이 있습니까?

- | | |
|------------------|------------------|
| - 만성 B형 간염 | - 만성 C형 간염 |
| -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 - C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
| - 간경변 | |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한다면, 암 검진에 더욱 신경 쓰세요.

- | | |
|-------|---------|
| - 위암 | - 간암 |
| - 유방암 | - 자궁경부암 |
| - 대장암 | - 폐암 |

암 검진은 나와 가족을 위한 투자

암 검진은 어렵고 비싼 검사가 아닙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조금만 투자하세요.



유방암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Pap smear)



대장암
분별장혈 검사



간암
복부초음파 검사



위암
위내시경 검사



폐암
저선량 흉부CT검사

여러분은 지금까지 암 검진을 받은 적이 있나요?

Q 받은 적이 있다고요?

네,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계속해서 주기별로 암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요? 왜 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검진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나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암 검진 비용이 부담된다고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 기관을 모른다고요?

암이 발견될까 두려운가요?

검사 과정이 힘들 것 같은가요?

암 검진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암 검진에 대한 모든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https://www.cancer.go.kr>)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1577-1000, <https://www.nhi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암은 대부분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입맛이 없거나 체력이 떨어지거나 소화가 안 되는 등 암을 의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미리미리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암 검진입니다.

암 검진을 반드시 크고 유명한 병원에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나 회사 가까이에 있는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편리한 시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검진 기관은 보건소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https://www.nhis.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싸다고 좋은 암 검진은 아닙니다.

비싼 의료장비를 통한 검사만이 암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효과를 인정받은 간편하고 저렴한 암 검진 방법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999년부터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암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우리나라 국민의 하위 50%에 대해서는 무료로 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통해서도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암검사와 대장암검사(분변잠혈검사)는 비용이 전액 무료입니다.

암 검진은 간편한 검사 방법으로 암을 진단합니다.

6대 암 검진프로그램에 포함된 암 검진 검사는 대부분 고통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진단합니다. 유방암의 경우 유방 촬영을 하는 동안 약간의 불편감을 감수해야 하며, 위 또는 대장내시경검사는 수면내시경을 통해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내시경이 힘들다면 위장조영검사를 통해 비교적 편하게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암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암 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아지며, 조기에 진단하였을 때는 장기의 형태나 기능을 보존하면서 암 조직만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찾으십니까?

암 검진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까? 그럼 저희와 함께 암 검진을 받아 볼까요?

암 검진의 중요성을 느끼고 암 검진을 받기로 결심하셨나요? 그럼 이제 암 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알아봅시다.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해 암 검진 대상자에게 대상자 검진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검진표를 받아 본 적이 있나요?

받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간단하게 암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암 조기 발견의 1등 공신!!

유방암 검진표 (40세이상 여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용 부 담 |
통 보 처 |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궁경부암 검진표 (20세이상 여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용 부 담 |
통 보 처 |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상반기 간암 검진표

유효기간: 1월~6월(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용 부 담 |
통 보 처 |
의료비지원 |

*간암 고위험군 기준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대장암 검진표 (50세이상)

*대장내시경 검사 대상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용 부 담 |
검 사 항 목 |
통 보 처 |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하반기 간암 검진표

유효기간: 7월~12월(40세 이상 고위험군)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용 부 담 |
통 보 처 |
의료비지원 |

*간암 고위험군 기준은 뒷면을 참조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위암 검진표 (40세이상)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용 부 담 |
통 보 처 |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폐암 검진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용 부 담 |
통 보 처 |
의료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암 검진표 예>

암 검진 대상 여부 확인하기

- ▶ 전화로 확인하기
 - 올해 암 검진 대상 여부는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통하여 특정 암 또는 국가암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 검진 기관 확인하기

- ▶ 전화로 확인하기
 - 가까운 암 검진 기관도 거주지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를 통하여 암 검진 의료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가까운 암 검진 의료기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03. 암 검진 절차



1. 암 검진 대상자 확인

암 검진표에 '대상'으로 표기된 검사항목은 본인 부담 없이 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검진기관 확인

검진표 뒷면의 해당 검진기관을 확인하세요.

<사전예약>



3. 검진기관 방문 검진

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암 검진을 받습니다.



4. 암 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에서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검진받은 분에게 통보합니다.

○ 암 예방을 위해 암 검진을 받아 볼까요?

• 3월 21일은 국가에서 지정한 '암 예방의 날'입니다.

- 검진을 받겠다고 결심했다면 이런 의미 있는 날에 검진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 자신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부부가 함께 검진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 생일이나 결혼기념일같이 중요한 날에 자신 또는 부부의 건강부터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 암종별 암 발생 초기 증상을 숙지하고 확인합니다.

[부록. 답안과 설명]

1.	O	위암을 포함한 대부분 암은 발생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암으로 의심할 수 없는 비특이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2.	O	초기 유방암이라고 반드시 유방보존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한다면 유방의 형태를 남기고 암 조직만을 제거할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3.	X	한 번의 분변잠혈반응검사만으로 정확하게 대장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50세 이상의 성인에서 분변 잠혈반응검사를 매년 받아야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확률이 커집니다.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받고자 한다면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하며 대장암 관련 학회에서는 5-10년마다 이 검사들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4.	O	외국의 경우 성 경험이 시작된 이후부터 자궁경부암 검진인 자궁경부세포검사를 권고하며, 대한산부인과 학회와 국가암검진사업에서는 20세 이상의 여성은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5.	X	우리나라의 간암 검진은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검진이 아니라 40세 이상의 성인 중 고위험군으로 알려진 간경변증,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격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	X	폐경 후에도 유방암 발생은 줄지 않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폐경 후의 여성도 유방암 검진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7.	X	위내시경검사가 정상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위암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8.	O	자궁경부암검사는 현재 우리나라 2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이 2년마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	X	복부초음파검사만으로는 간암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간암 검진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므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복부초음파검사와 함께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검진 결과 간암이 의심되면 간 CT(전산화단층촬영) 등 추가적인 검사로 간암을 확인하게 됩니다.
10.	O	대장암 검진은 대장암 관련 학회 또는 국가암검진사업에서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암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국민 암예방 수칙 실천지침

발행일 2008년 3월(초판발행)
2013년 10월 발행(1차 개정판 발행)
2016년 7월 발행(2차 개정판 발행)
2017년 12월 발행(3차 개정판 발행)
2018년 12월 발행(4차 개정판 발행)
2019년 12월 발행(5차 개정판 발행)
2025년 3월 발행(6차 개정판 발행)

발행인 국립암센터 원장
편집인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디자인 옵스웨이